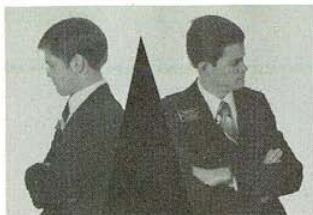


성도의 빛 8
1980





성도의벗 8

1980

차례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돈 테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처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미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공키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교문

엠 러셀 발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성령의 인도.....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질 의 응답.....		7
의로 향한 여행.....	에이 린 스코비.....	9
레이 하몬.....	리처드 지 오맨.....	16
세월의 나무.....	헤이즐 엠 톰슨.....	22
하나님을 향한 부자.....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25
심심풀이.....		27
조니의 친구.....	이 엠 케슬.....	28
마이크와 커트는 포기하지 않는다.....	데브라 스폅 헤드필드.....	30
목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토라 호타.....	35
유일한 참된 보화.....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37
승자의 구두.....	로버트 엘 맥맨 장로.....	41
안토니오를 방문함.....	콜린 더글라스.....	43
지역 지도자 메시지.....	민 헤기 부산 스테이크 부장.....	45
지역 소식.....		47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회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정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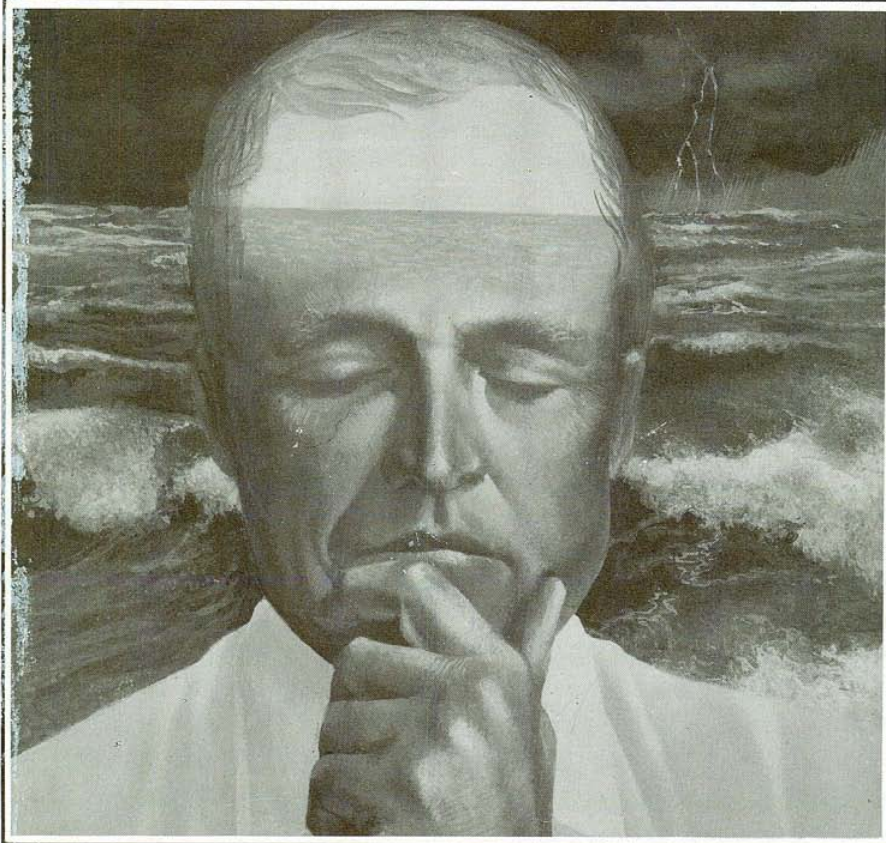
통 권: 제181호, 제17권 제8호
중 국: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80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유진 피델
번 역: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82KO PRINTED IN SEOUL, KOREA 8/80

© 1980년
대한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령의 인도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라는 말씀을 드리기 앞서 얼마 전에 쿠르트 발트하임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한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날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마땅히 알아 두어야 할 관심사를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격동하는 이 시대의 발전이 낳고 있는 불안감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현상에 대한 깊은 걱정이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어쩔 수 없는 운명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의 과도기와 변화기에 대한 증상이 극단적으로 예언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점은 이와 같은 불안을 낳는 문제의 범위와 정도가 새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어느 작은 부분의 문화가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국제 연합 총회, 1974년 8월 30일)

자세한 설명을 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혼란과 방황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가 재난의 길 위에서 있다는 사실이 날로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안전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이와 같이 불안한 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낙담시켜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날의 어려움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신 제이 골든 킴블 형제님께서 언젠가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셨는데, 그가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전한 연사가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쓰면서 회개에 대하여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이 골든 킴블 형제님이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이란 집에 빨리 돌아가서 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험난하다 하더라도 나는 골든 형제님의 권고를 따르라고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시에 주의하여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에서 있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그에게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재난이 오는 것을 미리 보셨으며, 그 재난을 모면하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1831년 11월 1일에 그는 이미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교리와 성약 1: 17—18)

주님은 앞으로 임하게 될 재앙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저들은) [지상의 주민을 의미함] 주

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다.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파멸하리라.”(교리와 성약 1:16)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셨고,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지시하신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도리의 방법이란 성령의 인도입니다.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이러한 인도가 현실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고, 이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모든 개인적, 국가적 및 국제상의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타고 나는 것이며, 교리와 성약 84편에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

“또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사 너희에게 확인하여 주신 성약을 저에게 가르치시나니, 그 성약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확인되고 너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서도 확인되었느니라.”(교리와 성약 84:46-48)

모든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워졌으며, 그 영의 인도에 대응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이 엄청난 진리는, 인간이 상속된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전세의 영적

인 생활에서부터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는 진리는 경전에 여러 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93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또 나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요.”(교리와 성약 93:1-2)

반면에 영의 인도를 거절하고 악의 유혹에 따르는 자는 세속적이고 육욕적이며 악하여져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리하이이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27)

영의 인도를 받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점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나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연고니라.

“또 이로써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여 알 수 있으며 온 세상이 지금도 죄와 흑암 아래 신음하고 있는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84 : 51, 53)

이 교리는 경전에서 여러 번 되풀이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93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정죄를 만나니.”(교성 93 : 32)

이러한 가르침은 각 사람이 받는 영적인 인도는 완전히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영으로 깨우침을 받았으며, 자신의 자유의지를 받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책임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중립 지역이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게 되고 악한 영의 속삭임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가르쳤듯이 그들은 “잠시 기꺼워 할지라도 차차 마지막이 이르매 배어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길 속에 던져지리라.”(니삼 27 : 11) 역사, 경전, 그리고 매일매일의 경험이 이 진리를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영감받지 못한 인간의 지혜는 결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결손하여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세상의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타날 일에 관하여 주님은 계시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황폐하게 하는 벌이 땅의 주민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회개

하지 아니하면 때때로 벌을 쏟아 부으리니, 드디어 땅은 공허하게 되며 그 주민은 내가 올 때의 밝음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이니라.”(교성 5 : 19)

세상이 재난을 면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택하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면할 수 있는 모든 계시된 방법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였을 때의 뜻을 좇아야겠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 : 15)

성령은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에녹의 백성과 니파이인들의 전성기에 그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듯이, 사악한 세상에서 일망정 의를 지키는 단 한 사람에게도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반하여 주님의 성령이 이미 떠난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 몰몬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수고를 그칠진대 정죄를 받을 것인즉, 저들이 비록 강박할지라도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자.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사는 동안 다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 이를 다하여 온갖 의의 원수가 되는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모로나이서 9 : 6)

예언자 요셉은 카테지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놀라

지 말라. 저들은(군대) 진리의 원수들이 고대 성도들에게 대하였던 것 이상으로 그대들에게 행할 수 없으리니……그들은 다만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느니라.” 잠시 후에 이같이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 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교성 135 : 4) (교회 정사 6 : 554—55)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또는 백성을 낙담시키거나 패배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 : 27)

교리와 성약 제 9편에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시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항상 이 시험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의 물론경 번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해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리와 성약 9 : 8)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교성 84 : 46)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태어나며

인간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를 인도해 줄 빛을 거부할 때에 세속적이고 육욕적이며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경전의 말씀에 한결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음 구절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시느니라. 또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교성 84 : 46—47)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얻고 지키고자 한다면 다음의 간단한 네 가지 요점을 좇아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합당한 곳에서는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구세주의 권고를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제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태복음 6 : 6).

주님께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큰 신앙과 확신을 갖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을 연구하고 배우십시오.

셋째,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십시오.

넷째,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 계시의 말씀을 인 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처음 부 분은 아직 때가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 오라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 신 탄원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대부분 의 계시는 주님께서 영광과 하늘의 구 름에 쌓여 이 땅에 오시는 날의 표적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시 언급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는 그의 재림의 표적에 대하여 그의 제 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며 이 계시에서 주님 은 이 사실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표적으로,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 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

“그러나 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 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빛을 깨닫지 못 함이요, 인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 음을 내게서 돌이키는 연고니라.”(교성 45 : 28—29)

“그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 고 온 세계는 동요할 것이며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이므로 “악인 중에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자들도 있으리라.

“각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 라.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마음 을 완악하게 하여 내게 대적하며 검을 들어 서로 치며 죽이리라 하였더라.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오시 는 큰 날 곧 인자가 오는 징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리라. 저들은 권능 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천사 를 거느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나를 보리라. 무릇 마음을 다하여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잘리워 버림 받으리라.

“그때에 주의 팔이 여러 국민 위에 미 치리라.

“재앙이 조롱하는 자들을 뒤덮을 것 이요, 조소하는 자들은 불타 없어질 것 이요, 악을 바라고 기다리던 자들은 잘 리워 불 속에 던지우리라.

“내가 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그날 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이야기한 비 유가 성취되리라.

이제 다음은 시험입니다.

“지혜로와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 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딜 것이요,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번성하여 강하여지고 그 자녀들은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 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입법 자가 되실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45 : 26, 31—33, 39, 44, 47, 50, 56—59)

우리가 행하는 바에 충실한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안 내자로 삼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 멘. *

질의 응답



가정 복음 교육 방문을 받는 가족의 책임은?

에릭 스티븐, 에지몬트 프로브 유타 스테이크, 에지몬트 제11와드, 가정 복음 교사 및 주일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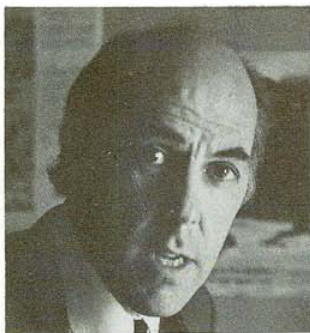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정 복음 교육을 가정 복음 교사의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동안 방문한 두 친구들과 담화를 나눈 다음 그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수동적으로 듣는 것으로 가족의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정 복음 교사는 “가족이 완전히 향하여 진보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사용해야 할 중요한 도구”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1974-75년,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참조) 그러므로 가정 복음 교사는

그 가정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는 제일 어른이 되는 분으로부터 방향 제시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 또한 가정 복음 교사에게 그들의 방문 교육이 효율적이 되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은 그 가족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가정 복음 교사에게 제언함으로써 가정 복음 교사가 메시지를 잘 선택하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가장은 가정 복음 교사로 하여금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강화시키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비활동일 경우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가족의 필요 사항을 토론하고 그의 승낙을 얻어, 그와 함께 가족의 활동을 계획하며 가정 복음 교사로 하여금 먼저 가장에 가서 지시를 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복음의 원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 복음 교사는 가족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아버지는 가정 복음 교사에게 가족들의 다음 6개월 동안의 목표를 적은 목록을 전한 다음 각 자녀와 부모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용기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정 복음 교사로 하여금 안내자가 되고 도움의 원천이 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자이므로 가장 또는 아버지는 가정 복음 교사를 신뢰해야 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



커피와 홍차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질이 실제로 어떻게 나쁠까요?

클리포드 제이 스트래튼 박사. 네바다의 과 대학 해부학 부교수. 레노 네바다 북스 테이크 고등 평의원.

커피와 홍차의 영향은 그것들이 함유하고 있는 카페인과 테오피린에서 연유되며 이들 두 가지 성분은 모두 알칼리성의 자연적인 합성물로서 세계 도처에 서식하는 식물 내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은 화학적으로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체내에 거의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칭하여 “질소 화합물 또는 크산틴”이라고 말합니다. 아스피린(및 여러 가지의 일반 의약품)도 질소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크산틴은 의약품으로 사용될 때 크게 유용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는 상당히 해롭습니다.

크산틴은 두뇌와 척수를 자극하고, 심장의 작용을 활발하게 촉진시키며, 두뇌로 연결되는 혈관을 축소시키고(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두통을 즉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국부적인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호흡 곤란을 회복시키며, 위장 내로 분비되는 산의 양을 증가시키고, 일반적으로 체내의 신

진 대사를 촉진시켜 줍니다. 분명히 신중하게 규정된 의약품으로서의 크산틴의 용도는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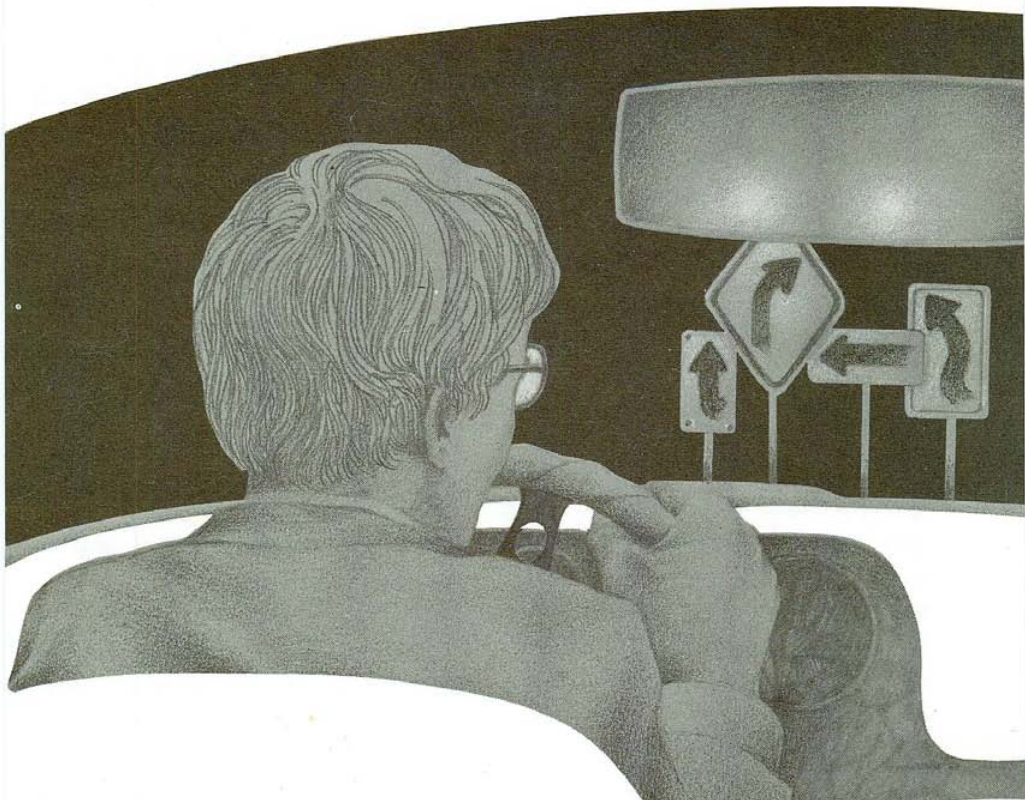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홍차나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 때문에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닌산도 역시 체내의 조직을 수축시켜 지혈 작용과 지사 작용을 하는 데 의약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러나 탄닌산은 크산틴이 아닙니다.

크산틴 과용은 설사, 빈혈증, 불안증, 전율증, 잦은 배뇨증, 그리고 불면증 등의 해로운 증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크산틴의 회수는 상당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복용이 과용인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카페인 50mg 내지 200mg이 눈에 뜨이게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¹ 두 권의 약물학에 대한 중요한 참고서에서는 250mg 이상을 과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² 6온스 들이 커피 한 잔에 포함된 크산틴의 양은 100—150mg이 되며, 같은 양의 홍차에는 65—75mg이 됩니다. *

1. 제이 에프 그레든. “불안이나 카페인이나: 진단상의 딜레마”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칼러지* 131, (1974): 1089—92.

2. 제이 시 리취. “중추 신경계 자극제, 크산틴” *치료학의 기본 약물법, 엘 에스 굤맨 및 에이 길먼 편* (뉴욕: 맥밀란 출판사, 1975년), 367—68 페이지; *이비 트루이트, “크산틴,” 드릴의 약물학, 제46판, 제이 알리팔마 편* (뉴욕: 맥그로힐 출판사, 1971년) 533—56페이지.

의로 향한 여행



에이 린 스코스비

내가 열 열덥 살이었을 때 브리감 영 대학교 물문경 반에 등록을 했고, 당시 나는 복음이 참된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항상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특별히 활동적이었고 항상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여 나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마서 32장과 모로나이서 10장 4-5절의 지시에 따라 이를 생활에 적용하였고, 내가 간구하였던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읍니다.

이 글을 쓰는 나의 의도는 복음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의 나의 경험과 발견한 내면의 세계를 나누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영적인 발전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경험이나 느낌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원리나 개념은 범 우주적인 것이어서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 1 단계 : 의문. 내가 성신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은 의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욕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읍니다. 나는 올바른 질문을 하였읍니다……의란 무엇인가?……그러나 나는 조금은 불손한 태도로 답을 얻고자 하였읍니다. 나는 내가 받은 증거의 세부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였읍니다. 다만 이 증거는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 부동한 증거가 되었읍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진리가 내게서 달아난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단이 아닌, 축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였읍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주님의 영과 대화하는 기도가 축복을 얻기 위한 기도보다 더욱 참된 목적을 가진 것이며, 대화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를 보다 훌륭하게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읍니다.

제 2 단계 : 단순히 교회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로움이라 할 수 있

을까?

의로움이란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게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읍니다. 의란 어떤 규율의 체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나는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였읍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마쳤고, 신전에서 결혼하였으며, 최단 시간에 대제사로 성임되어 감독단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고, 감독이 부탁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였읍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으로부터 받은 보상이 큰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내가 훌륭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읍니다. 여전히 나는 죄의식과 불합당함의 감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읍니다. 여전히 약간의 성격상의 결함과 다른 악이 나의 영혼에 머물러 있었읍니다. 교회 활동만으로 나의 죄를 근절시키는 것은 아니었읍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나의 죄를 없애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취한 첫번째 시도는 수고를 배로 증가하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는 더 좋은 직분에 부름을 받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음과 동등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읍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털어 버리는 데는 그 후로도 여러 해가 더 필요했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나는 내가 교회 지도자로부터 받는 모든 지시 사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좌절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때때로 나는

“이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두 가지의 “선한 행위”의 갈림길에 있다고 느껴질 때, 부탁받는 일들은 무슨 일이든지 행하겠다는 나의 목표는 그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교회의 모든 책임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항상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수행할 만한 시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좌절감과 죄의식까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는 의라는 목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적인 확신보다는 오히려 외적인 증거를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할 뿐더러 나 스스로에게도 완전히 의롭다고 느끼게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제 3 단계 : 의가 단순히 죄를 제거하는 것인가?

이제 나의 제 2의 시도를 기억하노라면 약간 웃음이 납니다. 나는 의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나는 죄짓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는 일이 우습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시도했던 방법은 아주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뺌에는 진지했습니다.

나는 먼저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그다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이 단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나의 죄와 좌절감이 실제로 없어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나는 스스로를 바꿀 필요가 없는 척했지만 그러한 환상을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양심은 나의 죄를 완전히 덮어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번째로 나의 죄를 찾아내고자 시도했을 때 나는 보다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 죄이며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실제로 내가 어떤 결단을 미루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점이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경전에 나와 있는 많은 경고의 말씀과 현대 예언자들의 경고의 말씀은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려 하였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죄를 없애야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 죄를 없애는 프로그램을 계

획하였습니다. 나의 프로그램은 나 자신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순결하지 못한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일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또 다시 시도하다가 두 가지의 더욱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여 성공할 때 끊임없이 성신으로부터 확신을 주는 따스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내가 나 자신에게 생각하지 말자고 거듭거듭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더 자주 내 머리 속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나의 문제는 내가 나의 죄를 어떤 투쟁, 즉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의지력으로 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것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나의 문제는 나의 관념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서 성취하려 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규명하는 대신에 내가 지니고 싶은 품격을 정의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한 결과는 대부분의 나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한 두 가지는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실패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4 단계 :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나의 다음번 시도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곧 내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가 아마 나의 생애에서 가장 불행한 때였을 것입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몸매 깊숙이 배인 습관이었으므로 나는 그 습관을 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방법으로 교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놀랍게도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드리는 동안에 나의 생각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외적으로는 바른 일들을 행하였으나 내적으로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활동에서 완전히 손을 뗄 때 오게 되는 불만을 피하려 하면서도 여전히 안전하고 정직한 결의를 거부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로 공과를 가르칠 수 있으나 결코 공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피할 만한 그럴듯한 구실이 없기 때문에 복지 사업 임무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리를 다스리려는 크고 복잡한 단체로,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배포하는 곳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뛰어나와 모든 죄와 좌절감을 우리 자신의 내부에 간직하게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생활에 뚜렷한 방향이 없음을 알 뿐입니다.

제 5 단계 : 발견. 그러나 나는 이러한 우울함과 외로움을 한없이 참아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늘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외로움은 나의 영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오직 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 스스로의 평가가 다른 사람이 내게 갖는 견해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일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자유를 얻은 듯했습니다. 나의 자기 평가가 다른 사람의 견해에 얽매어 있는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의란 내가 당면해야 하는 영원하고도 복잡한 기준이라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으므로 의를 자유롭게 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영원한 복지 향상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이러한 종류의 자신에 대한 배려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비중의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는 것에는 한 가

지 이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 행위는 이기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남에게 줌으로써 오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행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는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6 단계 : 참다운 의의 원리. 이러한 경험과 통찰력—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느낌과 의로왔던 경험—으로 무장한 나는 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물몬경 반 학생이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쭙었으며 그분은 자신의 실재를 내게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요 17:3 참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 주시며,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내가 같으며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능력으로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교성 58:28 참조)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마 6:33). 나는 내 안에 의로운 상태를 창조할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 다가갔을 때 발견하게 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오는 넘치는 사랑과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교통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의를 행하기 위한 확실한 기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치와 진보는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부유하며 권세가 있는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밖의 다른 많은 만족스럽지 못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나 자주 성신이 나에게 내가 아버지와 같이 되는 일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밝혀 주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참다운 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나는 보다 주님처럼 되기 위하여 이같은 성품을 나 자신이 본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세 단계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나는 어떠한 외적인 압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데 나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노력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내가 선택한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세번째는 성령과의 대화, 즉 나의 선택이 합당하다는 증거, 나아가서는 내가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재확인이었

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려는 나의 첫번째 시도로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피곤하고 우울한 느낌을 종종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감정을 집으로 그대로 가져 오면 나는 훌륭한 남편이거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매일 아내와 자녀들에게 명랑하고 즐거운 상태로 집에 돌아온다면 보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나는 결정을 실천에 옮겼고, 경험을 통하여 내가 나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사용한 한 가지 작은 방법은 집에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건물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건물을 보며 나는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자녀들과 노는 즐거운 시간, 아내와 함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였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받는 보상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수고를 주님께서 승인하신다는 것을 느꼈으며, 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다른 행동을 정하는 데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나의 소망이 자라면서 의로 향하는 이 세 가지 단계는 교회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견해를 급속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가정 복음 교육을 행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다운 성품을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행하고 싶어졌습니다. 동기는 강했습니다. 내가 발전하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곧 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나는 교회 프로그램은 원하는 성품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품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을 배우는 성품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다만 습관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영과 교통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다운 성품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의 구조입니다. 나는 여기에서도 나의 태도가 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즐거움과 성장의 가장 훌륭한 근원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과 개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르치고 웃고 사랑하고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순간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와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에 대한 자세도 변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나의 죄를 대치할 때 그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의로 향하는 과정을 계속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노하기 위하여 들

인 정열을 이제는 유순하기 위한 방향으로 돌렸으며, 그렇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곧 분노는 나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특히 나 자신—일지라도 내가 특기할 만한 의의 상태를 쟁취하였다고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즐거움을 가져다 줄 선택이면서도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 나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올바른 목표의 축복과 함께 오는 즐거움과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첫째로 “네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는 질문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일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네가 누구와 같아졌느냐?”에 나는 “당신과 같아졌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



레이 하몬

리차드 지 오맨



레이 하몬

의 궁전에 걸려 있다. 말일성도 화가로서 본국에서 이같은 평판을 얻고 있는 화가는 드물다.

백인 어머니와 마오리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레이는 뉴질랜드 북부에 있는 섬의 동해안인 기스본에서 자랐다. 그의 가족은 가난하였지만 매우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었다. 어린 소년으로 레이는 집 주변에 있는 잡목과 울창한 삼림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조그만한 농장을 점차로 넓히는 일을 도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러운 마룻 바닥을 깨끗이 쓸고는 가족을 모두 모아 놓고 가족 기도를 드렸다. 키위 새와 웨카 새 소리 그리고 우람한 나무의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는 매일 밤 그를 잠재우는 자장가 소리였다.

어린 소년으로 그는 우레와라 지역으로 가서 양치는 목장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쪼개는 일을 하였다. 많은 마오리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는 숲의 생태를 배우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라는 온갖 식물과 동물 그리고 땅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숲에서 여러 해 동안 지내면서 그는 온갖 나뭇잎의 모양과 색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그는 작은 곤충까지도 자세히 관찰하였다.

그러나 레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은둔자는 아니었다. 그는 동료들도 사랑하였다. 그가 결혼한 직후에 가까운 친척 한 명이 죽었다. 레이와 그의 신부는 고아가 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었

리차드 지 오맨, 교회 역사과의 수집관장이며 솔트레이크 리버티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1976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왕실 순례 여행의 일부로 뉴질랜드를 방문하였을 때, 뉴질랜드 정부는 여왕에게 뉴질랜드 제일의 풍경 화가, 레이 하몬이 펜으로 그린 대형 그림을 예물로 드렸다. 뉴질랜드가 레이 하몬에게 표시하는 높은 경의는 특별히 말일성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열 네 형제 중의 맏이며, 열 네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레이 하몬이 평생을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온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뉴질랜드 풍경화인 오키리토의 보석은 현재 영국 여왕

다. 몇 년 후, 그의 아내는 무서운 홍수가 지난 후에 병이 든 아이를 간호하다가 장티프스에 걸려 죽었다.

결국 레이는 수줍음이 많은 아름다운 마오리계 미망인과 재혼했다. 그녀는 갑자기 생긴 열 자녀의 따스하고 사랑 많은 어머니가 되었다. 그녀와 레이는 자녀를 네 명 더 낳아 모두 열 넷의 자녀를 두게 되었다. 지금 현재 하몬 부부는 설혼 한 명의 자녀의 부모인데 그들의 대부분은 고아였다.

40년 이상을 레이는 숲에서 살면서 일하였다. 그러다가 심한 등의 상처로 힘든 육체 노동의 날들에 종막을 고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그는 재정난을 겪어야 했고, 아무 일도 못하는 낙담의 생활을 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자녀들이 모두 학교에 간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침실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곤경의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레이는 6세 된 딸이 펜과 화판을 두고 학교에 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펜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림 그리는 것은 그가 국민학교 때 이후로는 한번도 해 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은 영감을 받아 시작한 일이었다.

많은 연습을 통하여 그는 독특한 자신의 화풍을 발전시켰다. 그는 반 에이크의 세심한 주의와 스라(1859~1891)와 같은 프랑스의 점묘파 화가의 기술을 합하여 자신의 것으로 토착화시켰다. 그는 그의 그림에서 거의 스트로크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가 작은 점으로 종이나 양피지에 펜으로 그렸다.

레이는 그의 첫번째 그림에 대하여 약간 부끄럼을 느꼈기 때문에 초기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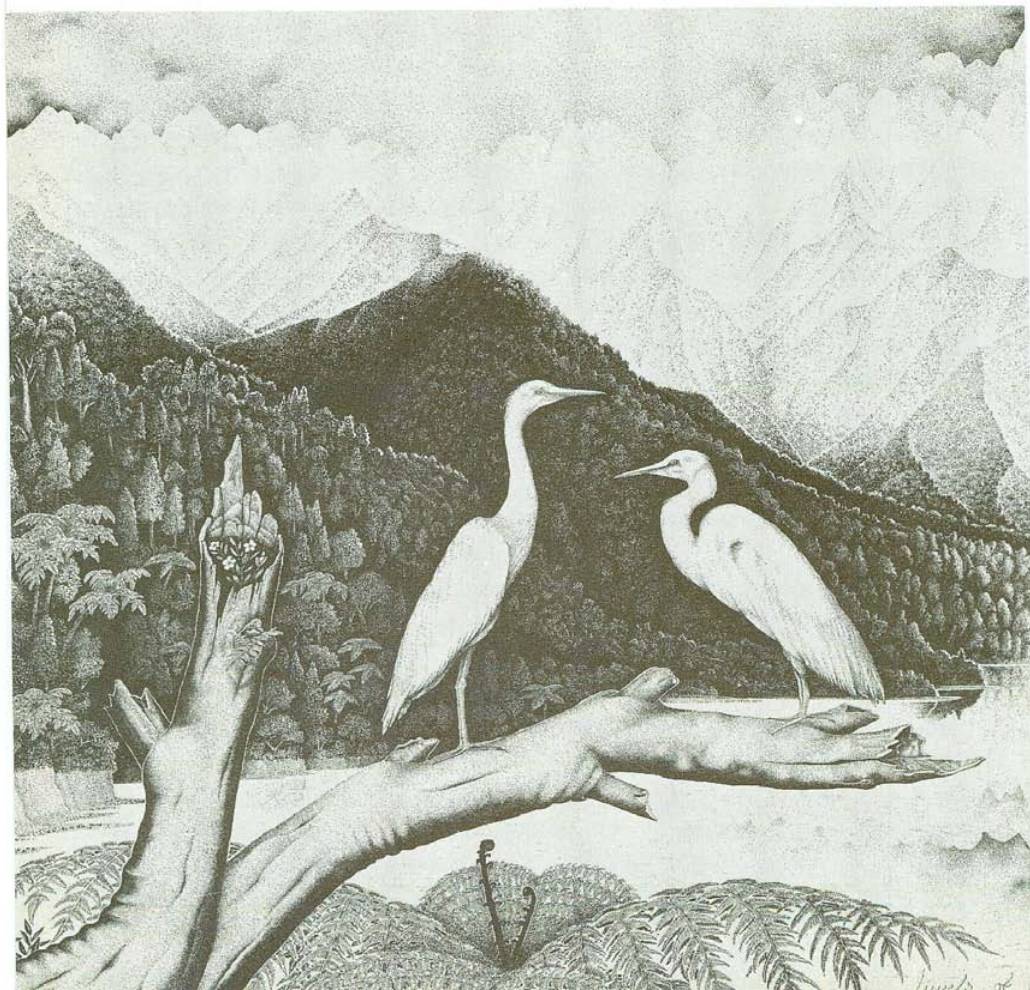
린 그림들을 감추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발견하여 그 지역의 사진 작가에게 가지고 가서 사진 복사를 맡겼다. 사진 작가는 그 그림들의 가치에 크게 감동하여 그 그림들을 어클랜드 미술 박물관 소장에게 가지고 갔다. 그는 곧 레이의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또한 화가를 공보 관계인들에게 높이 평가하여 소개하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레이는 그의 작품에서 섬세함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그가 유명하게 되었다. 그의 새로운 진로가 결정되었다. 그때 이후로 그는 그의 주요 작품을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전시하였다. 최근에 그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가 대변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환경에 대하여 강의하는 19,300킬로미터의 여행에서 돌아왔다. 최근에 그는 러시아로부터 자연 보호에 대한 강의와 그의 작품을 전시해 줄 것에 대한 초청을 받았다.

오카리토의 보석 여왕에게 증정된 그의 그림은 레이의 예술과 그의 자연에 대한 태도와 자연 보호가 하나로 융합된 것을 나타내 보여 준다.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카리토의 석호를 둘러싸고 있는 숲과 산은 흰색 왜가리인 코투쿠의 마지막 서식처이다. 코투쿠는 마오리족에게 성스러운 동물이다. 마오리족은 여러 해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테 코투쿠 레겐가타히”(“한 번 나르는 희귀한 흰색 왜가리”)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여왕에 대한 그들의 높은 존경심을 표하였다. 그림에 있는 큰 나무들—마타이, 토타라, 카히카티아, 카우리—은 석호를 둘러싸고 있는 훌륭한 포다카프 숲을 대표한다. 새들이 깃

들고 있는 나뭇 가지는 인간의 손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손이 새들을 존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멸망시킬 수 있는 새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을 그려 주고 있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나뭇 가지는 뉴질랜드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야자”에 깃들고 있는 네 송이의 작은 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축복인 어린이, 곧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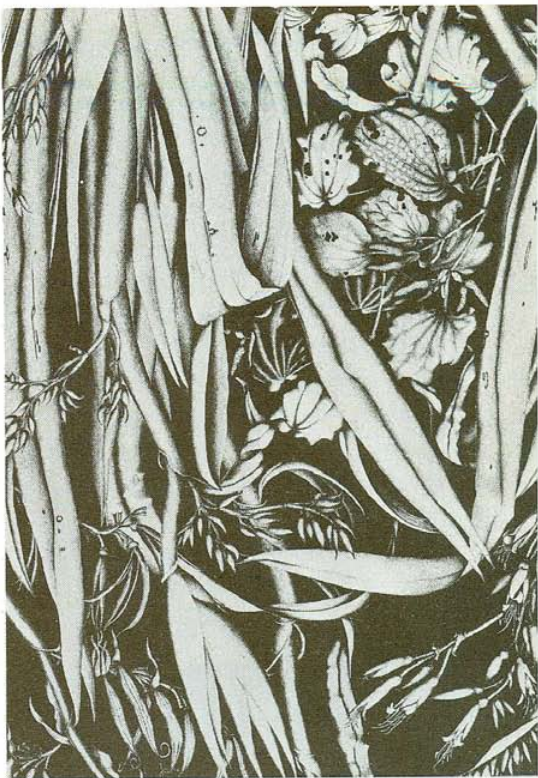
상징한다. 이것은 사람이 그의 가족을 보호하듯이 환경의 보호를 요구하는 탄원이다. 레이의 대부분의 작품은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레이의 작품의 주제 레이 하몬은 숲 속에 있는 그 지방 특유의 식물과 동물만을 그린다. 그는 다른 나라의 풍경 화가들이 주로 작품 주제로 삼고 있는 농촌이나 마을을 그리지 않는다. 그는 나뭇잎과 곤충뿐 아니라 고유의 꼬인 나무, 포도나무, 고비 식물 등을 찾아 뉴질랜드의 독특한 자연 유산에 대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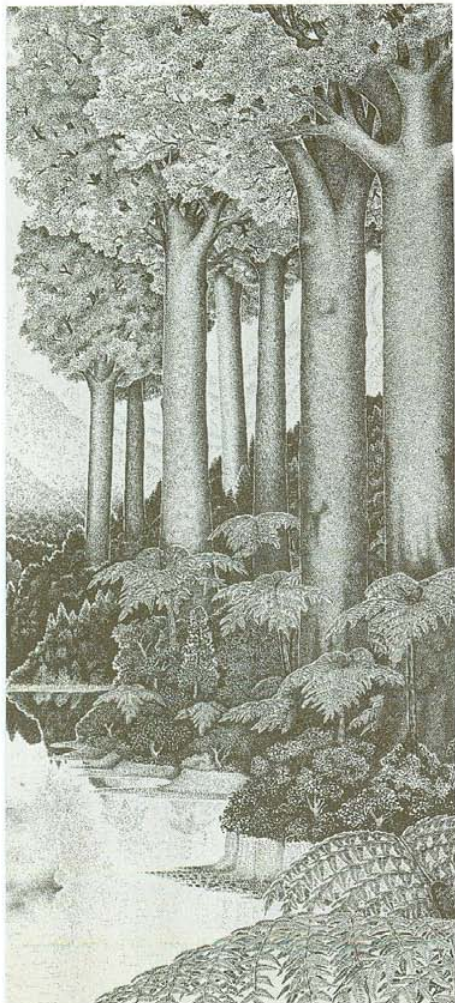


의 사랑을 표현한다. 레이는 그의 태도를 발표하는 시를 지어 출판하기도 하였다.

레이는 그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린다. 때때로 그는 늦은 밤, 가족이 모두 잠든 후 그의 방에 혼자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썼다. “나의 생각은 내가 그렇게도 깊이 사랑하는 자연 현상의 신비스러운 심연으로 빠져 들어간다……이처럼 사색의 도가 가장 고조되어 있는 동안, 사람의 정신은 무의식적으로 의



플렉스(뉴질랜드 윈산 백합)세부 묘사. 1970년 작품. 플렉스는 뉴질랜드 식물군의 특색을 잘 잡아 주었다. 하몬은 그의 모든 작품에서와 같이, 기억을 살려 이 작품을 그렸다.



오카리토의 보석은 1976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증정된 것으로, 하몬의 자연관이 극히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식과 무의식을 분리하는 얇은 장막을 거두어 그의 창조력과 창작력을 그의 정상적인 능력 이상으로 올려 주게 된다…… 나는 내 자신의 손 옆에 있는 위대한 권능의 손을 의식한다.

이와 같은 경험의 결과는 그의 작품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어떤 미술 평론가는 레이의 작품이 관객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전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성장과 부패의 자연적인 과정에 대한 비전, 뉴질랜드인들을 자주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깊은 심연으로 끌고 가는 신비스러운 능력과 풍부함으로 그려진 깊은 관목 속에 실체화되어 있는 생물체의 위엄에 대한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는 풍경은…… 풍경 대상 자체보다도 더욱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떤 관람객은 이렇게 말하였다. “피상적인 접근은 결코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 작품은 깊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이 작품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준에서 볼 때 레이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미술 시장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인식은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에 그의 작품 하나가 2만불에 팔렸는데, 이 기록은 생존 화가가 그린 펜화로서 세계에서 가장 고가를 받은 기록이다.

종교적인 예술 레이의 초기 작품 중의 많은 작품들이 레이 하몬, 뉴질랜드 관목의 화가라는 제목이 붙은 책에 출판되었는데, 현재 재판을 찍고 있는 중이다. 이 자서전은 화가의 예술적 가치



우: 일명 숲속의 고어로 알려진 카우리 노트는 부목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왼쪽에 있는 양치류 식물인 레이의 ‘필’ 채리를 하몬가에서 처음으로 입양시켰을 때의 일을 나타낸다. 중앙에 있는 꽃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의 채리를 나타낸다.

좌: 웨티스에서 하몬 형제는 풍요한 삶을 어디서든 자연적으로 섞여가는 중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면에 대해서도 말해 주고 있다. 그는 매일매일의 가족 기도, 십대와의 대화, 가족의 영원성, 주례 가정의 밤의 중요성, 근면, 기도의 결과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레이는 이 책에 있는 다음 문단에서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품 이외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 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모범적인 아버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가정은 미래의 생활을 위한 썸이다. 썸물이 맑으면 그 썸에서 나오는 물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연에 대한 한없는 기이함을 경험하였고, 항상 주시하는 나의 아내와 열 네 명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영적인 가치 면에서 진흙 덩이에 비교되는 왕관의 보석과 같은 추억과 경험이 점점 많아져 갔다.”

비말일성도 독자들에게 써어진 이 자서전은 레이의 말일성도 신앙의 가장 심오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능과 간증의 연합물이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은 채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 뉴질랜드 신문 기자는 레이의 성품과 예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상적인 뉴질랜드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이 하몬이 그러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마오리인의 피가 섞여 있으며, 그의 아내는 마오리인인 마치아입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가식이 없습니다. 그는

가족 중심적이며, 그가 살아왔고 일하였던 숲 풍경을 사랑합니다. 그는 사교적인 사람이지만은 자연과 함께 혼자서 대화함으로써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는……자기 혼자서 배운 화가로서 그의 자신의 순수성이 그의 작품에 힘을 더해 줍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사물을 적시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을 그는 작품에 묘사하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생활과 예술은 충실한 말일성도 화가의 훌륭한 모범이다. 그는 타메스 지부에서 지부장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직분을 맡아 보았다. 현재 그는 지부 선교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세상이 레이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지만 그는 충실하게 가족 중심으로 살아 가고 있다. 그는 그의 작품, 그의 글, 그의 강의, 그의 생활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는 조국의 전통과 자연 환경에 대한 심오한 사랑 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신앙까지 표현하고 있다.

“예술은 큰 축복의 소산이요, 놀라운 동반자의 참여의 산물이다.”라고 그는 기록하였다. “주님이 그(동반자의 일원) 하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어린 자녀들 그리고 나의 모든 형제들이 또 다른 동반자이다.

나는 펜을 다스리는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동반자의 관계에서 하나라도 빼 버린다면 우리의 예술과 그 아름다움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러한 동반자의 대열에 속하게 된 데 대하여 겸손함을 느끼고 감사한다.” *



세월의 나무

헤이즐 엠 톨슨

알 몬은 할아버지가 오래된 올리브 나무의 구부러진 마디를 부드럽게 매만지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 올리브 나무도 할아버지처럼 늙어서 구부러졌구나.”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춥고 메마른 바람 때문에 구부러진 거예요.” 알몬은 때때로 여러 날을 두고 세차게 불어대는 돌풍을 생각하면서 대답하였다.

“내 나무도 이제 지쳤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 나무들은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이태리에 왔을 때 심은 나무들이란다. 이제 할아버지만 남았어. 이 나무들 하고 할아버지는 함께 살았고, 함께 죽게 될거야.”

알몬이 외쳤다. “할아버지! 제가 있

짧아요.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서 이 나무들을 돌볼게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몬 등 뒤로 그의 남아 있는 올리브 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알몬은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태리 전역이 때에 맞지 않은 추위랍니다. 우리 마을에는 올리브 나무뿐만 아니라 보통 나무들까지도 모두 위협을 받고 있어요.”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몬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나무를 큰 천막으로 덮어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추위를 막아 줄 양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는 천막을 살 돈이나 모닥불을 피울 돈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의 나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이었다.

몹시 추운 날 밤, 알몬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야채를 가득 넣어 끓인 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알몬은 팔꿈치가 거의 해져 나간 얇은 외투를 벗으시면서 추위에 떠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가 식사를 마쳤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알몬은 문을 열고 시노르 투라니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고는 불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두 손을 재빨리 문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영감님께 드릴 모닥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사흘 동안 찾아보았지만 아무데서도 찾을 수가 없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숲의 일부만 겨우 녹

일 수 있는 정도예요.”

“참 안타까운 시간이구료. 마치 막역지우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구료.”

알몬은 할아버지의 음성에서 절망을 느꼈다.

그러자 시노르 투라니는 노인에게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영감님은 저보다 우리 숲을 더 잘 알고 계시니, 오셔서 어떤 나무를 보호해야 하고 어디에 모닥불을 지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몬은 할아버지의 갈래갈래 찢어지는 듯한 슬픈 마음을 자기도 느끼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나무들은 죽어 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나무를 살릴 수 있던 말인가?

그러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물론 해드리지요. 알몬하고 함께 가겠소.”

그날 밤 알몬은 할아버지와 나무에게서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올리브 나무의 젓빛나는 잎들이 검게 죽어 있었다. 강한 추위가 노인의 정신마저도 빼앗아 간 것 같았다. 그는 의로와 보였다. 그는 생명을 잃고 썩인 그의 나무들의 사체를 애곡하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셨다. 알몬은 혼자서 죽은 나무들 사이로 걸어갔다. 서 있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숙이 박고 있었다. 알몬은 혼자서 나무를 치우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다음주, 할아버지는 병이 들었고 알몬은 시노르 투라니에게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할아버지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음날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알몬의 귀에는 할아버지의 말
 씀이 쟁쟁하게 울렸다. 그날은 아름다
 운 봄날이었고 대기는 사과 꽃 향기로
 가득하였다. 알몬은 갑자기 자전거를
 멈추었다. 바퀴가 땅 위에 자국을 내면
 서 멈추어 섰다.

“사과 꽃이야!” 그는 큰소리로 외쳤
 다.

“내가 왜 진작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
 을까?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
 어! 삼년 아니면 이년만 되면 열매가
 열리게 될거야!”

시노르 투라니는 죽은 나무들을 제거
 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마당이 깨끗해
 졌을 때 알몬은 시노르 투라니에게 사
 과나무를 심겠다는 그의 계획을 말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곡식을 심는 것에는 약
 간의 창피를 느껴셔요. 그렇지만 사과
 나무는 다를 거예요. 1년생 나무들을
 구해야겠어요.”

“내 과수원에서 가져 가려므나. 너와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 주었잖니?”라고
 시노르 투라니는 말하였다.

할아버지가 일주일 후에 병원에서 퇴
 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외

치셨다. “내 나무, 내 나무들이 모두
 없어졌구나!”

“네. 할아버지 다 없어졌어요.”

알몬은 자기와 시노르 투라니가 심어
 놓은 어린 나무들을 조사해 보는 할아
 버지 곁에 묵묵히 서 있었다. 어린 나
 무들의 연록색 잎새들이 햇빛에 반사되
 어 비쳤다.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듯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이게 뭐냐?” 그는 희미한 정신으
 로 말했다. “이건 올리브 나무가 아닌
 걸!”

“아니예요, 할아버지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예요.”라고 알몬은 말
 하였다.

오랫동안 나무를 바라보던 노인의 눈
 이 밝게 빛났다. 그는 알몬에게 몸을
 돌려 그의 어깨에 팔을 얹고는 이렇게
 말했다.

“애야, 내가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을 좀 준비하지 않겠니? 이제 물
 도 주고, 가지도 쳐야 하고 할 일이
 많겠구나. 이 나무들은 온 마을에서
 제일가는 사과나무가 될거야. 잘 가꾸
 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
 자!”

✱

육 십 오년 전, 북부 멕시코에 살고 있던 물몬 개척자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활은 껍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하고 용감한 사람

들이었습니다. “있는 음식만 먹고, 옷을 해지도록 입으며, 갖고 있는 것만을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간다.” 는 것이 그들의 생활 규칙이었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하나님을 향한 부자



성도들은 가난하였지마는 “하나님께 향하여는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떠나게 된 이유는 물론 가족에게 임하였던 위험 때문이었으며, 그때는 멕시코 반란 중이었습니다.

1912년 7월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다음날 텍사스주 엘파소로 떠나라는 결정을 가지고 신권회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북부로의 여행을 준비할 때에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으로 떠나기 전에 나는 아버지께서 나의 머리를 잘라 주시는 동안 집 뒷마당의 살구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멕시코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멕시코에 머물 것이니 나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떠나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잠시 동안 내가 가장으로서 엘파소에 도착하면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전 10시경에 우리는 포장마차를 타고 멕시코 주아페즈를 떠났습니다. 어머니, 러디 이모, 조지 이모부는 앞 좌석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일곱 자녀들과 이모부며 자녀들—지금 기억으로 다섯 명인 것 같습니다—이 뒷 좌석에 앉았습니다. 나는 열차에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담아 놓은 트렁크 위에 앉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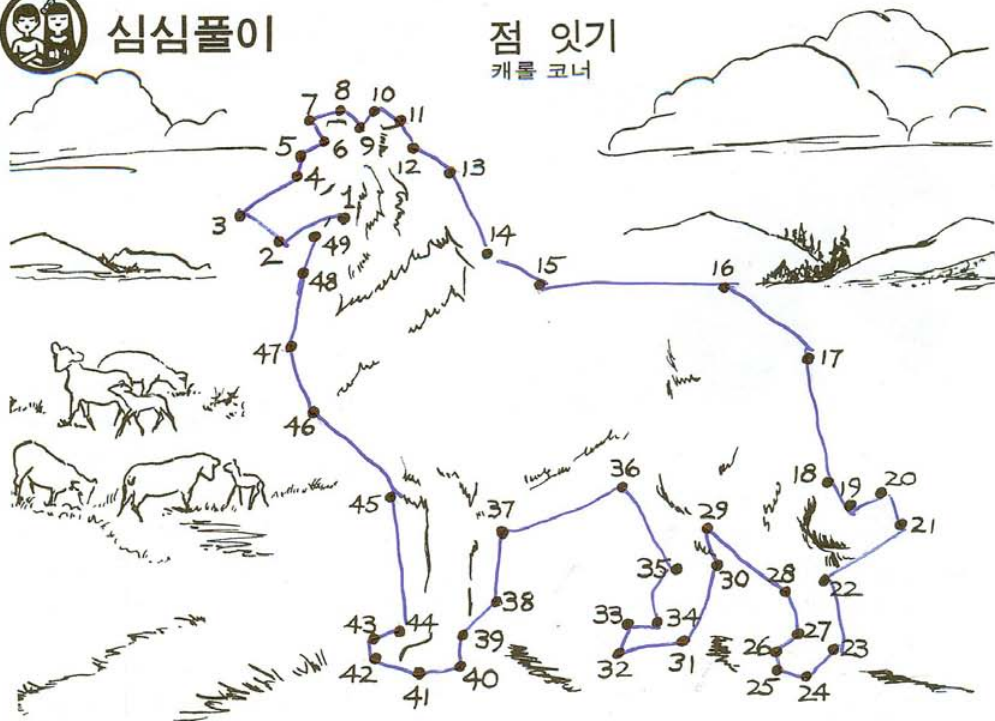
우리가 강을 건너서 큰 길로 달려가면 스코우센 방앗간을 지날 때 나는 우리가 온 곳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덴

스코우센 방앗간과 샌디애고 사이의 평지 너머로 반란군이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대형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으나 무질서하게 큰 무리를 지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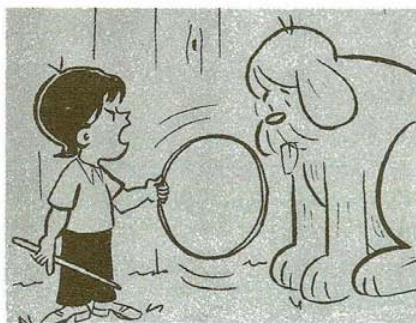
어깨에 커다란 탄띠를 둘러 메고 말에 탄 두 명의 군인이 갑자기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큰 뿔이 있는 구식 멕시코 안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수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우리 마차를 수색하였습니다. 그들은 군수품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미국에 도착해서 사용해야 할 유일한 돈인 멕시코 돈 20페소를 찾아 냈습니다. 그들은 조지 이모부에게서 20페소를 받고는 우리를 남쪽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고는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마차에서 약 90미터 정도 갔을 때 그들은 뒤로 돌아서더니 총을 꺼내어 우리 마차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내가 그 총구를 보았을 때 그 총구는 무척이나 커보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총에 맞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총을 내리더니 다시 뒤로 돌아서 가 버렸고, 우리는 모두 살아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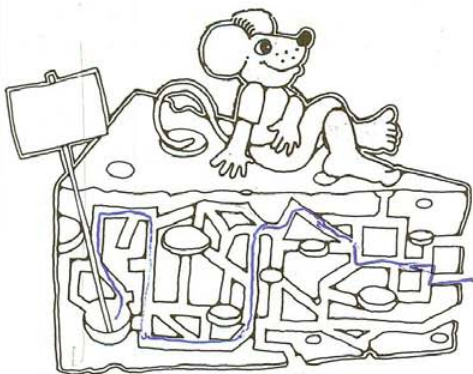
나는 항상 교회에 충성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용감하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압니다. *



집으로 가려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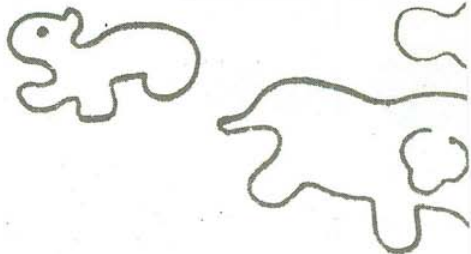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속으로
뛰어 넣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조니의 친구

이 엠 캐슬



조니는 울적했습니다. 같이 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토드는 할아버지 댁에 갔고 스코트는 아빠와 함께 낚시질을 갔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빵을 만들고 제빵소가 아가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지만 지금은 햇빛이 구름 사이로 밝게 내리 비치고 있습니다. 조니는 밖에 나가 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가서 놀아도 돼요?” 조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라. 하지만 점심 식사 시간에 늦지 않게 돌아와야 한다.” 엄마가 대



답하셨습니다.

조니는 신을 신고는 밖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는 인도로 뛰어내려가 키가 크게 자란 풀밭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신선한 냄새를 풍겼고, 비온 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조니는 풀밭 입구에 다다르자 옆으로 재주를 넘어 풀밭 등성이 아래로 굴렀습니다.

키가 큰 풀밭에 누워서 조니는 자기가 밀림 속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니는 산골 숲 속에 있다고 상상하였습니다. 마침내 조니는 자기가 풀밭을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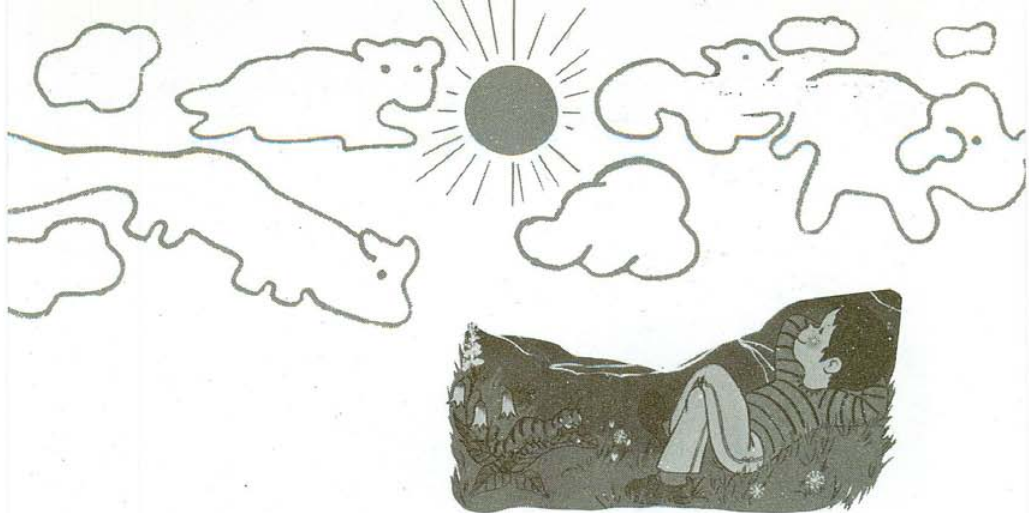
그러나 혼자서 노는 것은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조니는 태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태양은 커다란 솜구름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바람은 구름을 큰 귀와 긴 코를 가진 코끼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끼리 뒤에서 조니는 태양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살찐 곰, 배, 두 마리의 물고기, 개, 그리고 자동차도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보다가 조니는 아빠가 점심을 잡수시러 집에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조니는 다시 하늘을 쳐



다보았습니다. 구름에 있던 자동차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 옆에 세워둔 아빠의 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니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아기를 높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부엌은 온통 맛있는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들어왔구나. 혼자서 심심하지 않던?” 엄마가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조니는 하늘에 떠 다니던 구름의 온갖 모양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새 친구들을 찾았어요!” *





마이크와 커트는 포기하지 않는다.

데브라 스프 헤드필드

두 사람의 최우수 휠체어 경기자 마이크 존슨과 커트 브링크먼을 만나 보자. 그들은 미국 내의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도 기록을 깨뜨리고 상당한 수의 메달과 트로피를 받고 있다.

먼저 커트에 대하여 말하기로 한다. 지금 커트는 25세이지만 16번째 여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내 키가 2미터였었습니다. 나는 구기 종목 중에서 특별히 농구를 좋아했지요. 그때 고등학교 농구 팀에서 뛰고 있었는데 뉴욕의 실업 농구단에서 뛰고 싶다는 꿈까지 꾸고 있었었습니다.”

커트는 아이다호 셀리에서 자랐다. 그곳은 그가 언제라도 이웃 농장에서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 “저는 일하기를 좋아했어요. 저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제가 번 것은 무엇이든지 저축해

서 선교사 기금과 대학 학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커트는 6천불을 저축했다.

커트는 일을 하다가 쉬는 동안에 사고를 났다.

“때때로 어린 아이들은 미친 짓을 하고 싶어하지요. 전신주를 바라보다가 저는 기어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7.6미터 높이의 전신주에서 진흙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공중에서 세 차례의 전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 때문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살아 있는 것이지요. 진흙 바닥에 누워서 생각한 것은 ‘이제 다시는 농구를 할 수 없겠구나.’였습니다.”

커트는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

야 했다. 그동안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를 많이 도와 주었다는 것을 그는 회상하였다. 그의 친한 친구들이 그를 자주 방문해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친절하게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마을에서는 그의 병원 치료비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다. 그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그의 급우들은 그를 격려해 주고 그가 인생을 밝은 면에서 보도록 도와 주었다. 커트는 졸업하였다.

커트의 간증도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물몬이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세의 생활이란 영원한 생활의 극히 작은 일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언젠가는 제가 다시 다리를 갖게 되어 다시 썰 수 있을 것입니다.”

커트는 이년 동안 아이다호 렉스버그

에 있는 릭스 대학에서 상과를 전공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보니 하이마스를 만나 1975년 12월 20일에 아이다호 폴스 신전에서 결혼하였다. 우연하게도 마이크와 쟈 크라일러는 그보다 하루 전에 프로보 신전에서 결혼하였다. 두 부부는 그 당시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다. 보니와 커트 사이에는 현재 두 살 된 아들 그레고리 아담과 5개월 된 딸 로베인이 있다. 그레고리는 커트의 휠체어 뒤로 넘어 보니의 팔에 떨어지는 재주 넘기를 좋아한다.

마이크와 쟈에게는 2년 6개월 된 아들 쉐, 1년 6개월 된 아들 매트, 그리고 8개월 된 레이첼이 있다. 마이크는 커트보다 몇 년 연상이다. 그는 방금 31세가 되었고 쟈는 그것에 대해서 마이크를 놀리곤 한다. 그러나 그가 휠체어 경기자로서는 너무 늙은 것이 아니다. 마이크는 50대의 남자가 캘리포니



아에서 회전 활강 경기 두 종목에서 우승하였다고 말한다.

마이크는 서 버지니아에서 자랐으며 그의 부모는 그곳 교회의 회원이었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 1학년으로 등록하여 온 후에 산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등산과 사냥으로 보냈다. 지금 그는 매일 밤 아들들을 위하여 야영 생활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 “이야기 책을 읽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편이 쉽습니다.”라고 마이크는 말한다.

젠은 쉐이 열심히 듣고는 이야기가 다 끝나면 “그 얘기는 재미없어. 다른 얘기해 줘.”라고 말한다고 전한다.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의 1년을 보낸 후 마이크는 해군에 입대하였다. 베트남 전쟁에서 그는 위장 폭탄을 밟았다. 그의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했다. 커트의 경우와 같이 마이크의 회복은 견디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도 역시 그의 가족의 도움을 감사하고 있다. 마이크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의 부모님들이 무척 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살겠다는 욕망을 갖게 도와 주셨습니다.”

마이크는 1971년에 브리감 영 대학교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커트를 만났다. “나는 그가 그의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아주 잘 다루더군요. 저는 그가 훌륭한 휠체어 농구 팀 선수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차 안에 초대장을 써넣었습니다.” 그것이 그후로 지속적인 우정을 나누게 된 기초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콜로라도 덴버에

서 농구를 했던 사람이 그들에게 육상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해 준 후로 다른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국내 휠체어 경기에 대한 정보를 보내 주었으며, 두 사람은 브리감 영 대학교 육상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때가 1976년이였다.

같은 해, 그들은 콜로라도주 덴버에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몇 가지의 육상 종목에서 1위로 입상하였다. 그 다음에 그들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가서 입상하였으며,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올림픽 경기와 뉴욕에서 개최된 국내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46개국의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였다. 마이크와 커트는 세 개의 금메달, 한 개의 은메달 그리고 세 개의 동메달을 가지고 귀향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경기 첫해에 세운 놀라운 기록이었다.

마이크와 커트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커트는 제 5반이고 마이크는 제 4반이다. 각 선수는 각자의 불구 상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은 1반에서 5반까지인데 1반이 가장 불구의 정도가 심한 사람들을 위한 반이다.

이들의 성과를 개인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마이크는 원반 던지기에서 뛰어났다. 그는 제4반의 국내 기록인 26.74미터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는 또한 회전 활강 스키에서 미국 최우수 휠체어 선수이기도 하다. 회전 활강 스키는 기술과 민첩성을 시험하는 장애물 경기인데 마이크는 매우 민첩하다. 젠은 이 경기를 관람하기를 좋아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주 재미있어요! 이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지요.”

젠은 그녀가 올림픽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각 경기 종목이 끝났을 때마다 전화로 그가 입상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말한다. 그는 잔디 보울링은 전에는 전혀해보지 않았던 경기였지만 이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그는 탁구에서 1위, 100미터 달리기에서 2위, 원반 던지기에서 3위를 하였다. 마이크는 0.8킬로미터 달리기, 91미터 달리기, 그리고 수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976년 덴버에서 개최된 시합에서 마이크는 다섯 개의 금메달과 하나의 은메달을 받았고 최우수 남자 선수에게 주어지는 트로피를 받았다.

금년에 마이크는 국내에서 30회의 농구 시합을 가졌다. 그는 득점수로 국내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는 또한 테니스도 하였는데 유타 단식 테니스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어떻게 그가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는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테니스 공이 상대방 선수의 라켓에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나는 공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빠른 반사 작용을 취합니다.”

마이크는 금년에는 육상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경기에 출전하려면 집을 너무 많이 떠나 있게 됩니다. 저는 육상 경기를 몹시 좋아하기는 하지만 가정이 저에게는 더 우선이지요.”

젠은 이렇게 덧붙인다. “그이가 결정한 거예요. 그이가 집에 남아 있어서 남편과 아버지와 보호자가 되겠다고 결정하였어요.”

커트의 기록 역시 놀라운 것이다. 그는 1977년 4월과 1978년에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마라톤 경기 휠체어 부문에 2위를 기록하였다. 그는 42.152킬로미터를 2시간 34분 15초에 달렸다.

보스턴 마라톤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크고 전통있는 경기로서 상위권 선수들만 뽑혀 참가하게 되어 있는 경기이다. 금년에는 화씨 40° 이하의 추운 날씨에 20명의 휠체어 선수들이 경기에 참전하였다.

금년도 보스턴 마라톤의 휠체어 1위 주자는 오하이오주 아크론 출신의 물론, 켄 아쳐였다. 커트는 이렇게 말한다. “켄은 제가 만났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겼을 때 그는 승리의 팔을 올리고 결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결승선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1977년에 커트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된 모든 행사에서 입상하였으며, 91미터 달리기와 1.6킬로미터 달리기에서 1위를 하였다. 캘리포니아 샌디애고에서 그는 다섯 종목에서 2위 또는 3위에 입상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그는 100미터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여 1위를 마크하였다. 그는 또한 잔디 보울링과 원반 던지기에서 3위를 하였고 투포환에서 4위를 하였다.

같은 해, 커트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데저렛 뉴스 마라톤과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서 열린 파이오니어 마라톤의 휠체어 부문에서 1위를 하였다. 1978년 그는 뉴욕시 마라톤에서 1위를 하였으며, 현재 그는 1,500미터 달리기 부문에서 국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커트는 덴버 록키 산 지역에서 1978년과 1979년에 최우수 선수로 선출되었다.

마이크와 커트는 직장에도 다녔다.

마이크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주립 병원에서 재생원의 도안사로서 일을 하였고, 지금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대학교 농구 팀 코우치가 되는 것이다.

커트는 여러 가지 일에서 경험을 얻었다. 그는 보험 회사 외판원이었고 호텔에서 서기를 맡았으며, 전화 교환수였으며, 병원의 보험 서기로 일하기도 하였다.

현재 그는 프로보에서 신체장애자 치료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1978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재활원 행정학에서 석사 학위를 얻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다.

교회 활동은 그들의 생활의 또 다른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는 알파인 유타 스테이크, 알파인 제 4 와드의 소년단에서 일하고 있다.

커트와 보니는 프로보 웨스트 스테이크, 선셋 제3와드의 회원이다. 커트는 전의 와드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였고, 현재는 정원회 회장단의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봉사는 그들의 생활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유타주의 신체 장애자를 위하여 특별히 장치된 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마이크와 커트는 모금 자격을 얻었으며 185킬로미터의 유타 호수 주위를 16시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돌았다. 그들은 8일 동안 173.8킬로미터를 돌았던 세계 기록을 깨뜨렸다.

1978년 5월에 커트는 유타주 시다 시티에서부터 솔트레이크시티까지 5일 동안 157킬로미터를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부활절 실(Easter Seal)을 위하여

약 1만 2천불을 모금하였다.

커트는 여행이 선교 사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50명의 우수 선수들을 위한 배사츄세츠주 보스톤에서의 파티에 초대되었다. 그곳에서 왜 술을 마시지 않는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

커트는 사람들이 불구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에 무척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뛰어와서 왜 다리가 없느냐고 물을 경우 부모는 아이를 야단치면서 쫓아버리지 말고 자기가 그 아이에게 대답해 줄 수 있게 해주기를 커트는 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어린이는 앞으로는 불구자와 사귀어서는 안된다는 감정을 가지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린이에게 있어서나 불구자에게 있어서나 모두 좋지 않습니다.”

마이크는 몇 가지 조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불구자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중도에서 그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면 백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십시오. 그 목표가 직장에 관한 것이거나, 교회, 학교, 결혼, 어느 것에 관한 것이든지, 결코 중간에 그치지 마십시오!”



목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토라 호타

선 교사들은 자주 선교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교부장은 남은 일생 동안 “그들의 선교사”와 늘 교제를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선교부장이 그에게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 준 선교사에게 보고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같은 일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나는 십일조의 깊은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곧

벤 허클리 장로님을 알았고 장로님을 신뢰하였으며, 장로님께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장로님은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기를 원하셨다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1964년에 일본에는 북극동 선교부로서 단 하나의 선교부가 있었습니다. 형제님께서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지 몇 달 후에 형제님은 나의 작은 지부에서 아주 먼 곳으로 전근되었습니다. 형제님께서 특급 열차를 타고 떠나실 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호타 형제님, 십일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목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형제님이 가지고 계시던 것과 같은 아름답고 번쩍거리는 일본어 성경책을 몹시도 갖고 싶어했던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갖고 싶었고 또한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도와 준 장로를 기억하기 위하여도 그것을 갖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는 너무나 값이 비쌌습니다.

나는 십일조를 안 내면 그 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라. 그건 네 돈이다. 걱정할 것 없다.”

그러나 장로님, 나는 장로님이 주신 목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목표가 성신권의 권능과 성령을 통하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성경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내가 그러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맺어진 성약으로서의 십일조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우편 배달부가 내게 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선물 소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케익 상자 만한 것이었습니다. 소포를 열어 보니 장로님께서 내게 보내신 아름답고 번쩍거리는 일본어 성경책이었습니다. 나는 장로님의 깊은 사랑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책 안쪽에 이렇게 적힌 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호타 형제님, 즐거운 성탄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군마에서의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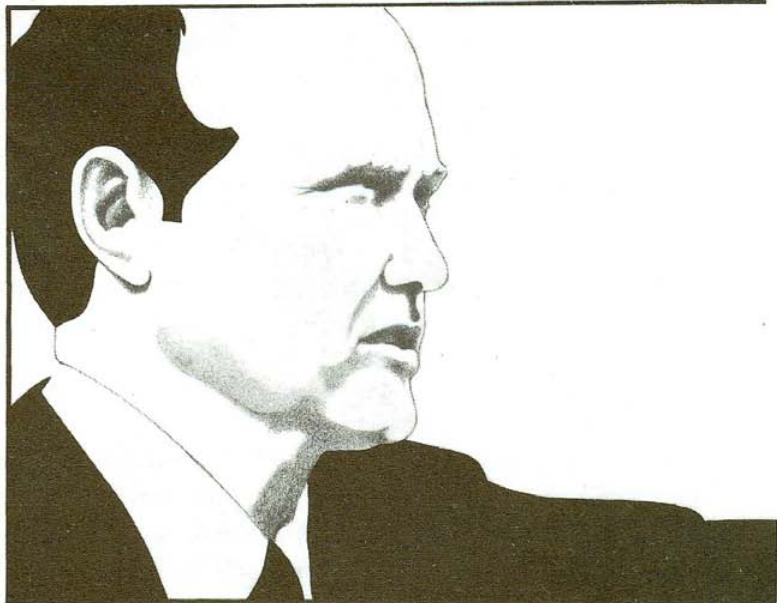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제 형제님도 곧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신전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복음이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덴히클리 장로로부터.”

그때 이후로 나는 항상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나는 또한 아내와 함께 신전에도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주님의 대표자로서 장로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과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직장을 잃어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기쁨입니다. 내가 결혼한 직후에 나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년 동안 나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의사는 내가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권의 축복으로 나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장로님과 다른 선교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신권의 회복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와 나는 1979년 7월 2일부터 일본 삿포로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고든 비 힐클리 장로님으로부터 성별받았습니다. 이것이 힐클리 장로님께 드리는 나의 보고서입니다.

지금은 읽고 공부하여 낱고 멀어진 아름답고 번쩍이던 일본어 성경책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중 가장 소중한 것의 하나임을 장로님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



유일한 참된 보화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사 람들은 항상 보화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것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간직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 힘과 위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보화를 발견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같은 탐구는 과거에 사람들을 이 때로부터 저 때로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탐구욕이 그들의 상상력을 충동질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보화가 인간이 소망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생의 종말에 가서야 그들이 모든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도 결국은 참된 보화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의 공허와 불행, 불만족, 계속 커져 가는 두려움만을 갖게 됩니다. 단 하나의 참된 보화의 기적이란 끊임없이 축복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보화, 그를 알게 되는 보화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것을 머리 속으로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에서 봉사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참으로 알게 되는 보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면서 나는 오직 이웃에게 회복된 참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복지나 사회 진로에 대하여 잊고 2년이라는 생활을 주님께 바치는 세계 각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인 젊은 선교사들과 갖는 이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세상적인 개인의 욕망을 이기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같은 길고도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길을 택하였으며, 생활의 위협과 자연적이며 현세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보호를 가져다 주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원으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느낌과 감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받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신으로 인도되고 지시되는 거룩한 땅에 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즐거움, 확신,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힘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해주는 참된 보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메시야이시며, 여호와이시고, 엘로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속삭임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항상 따르기를 배우는 것

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속삭임을 따르는 데에는 각별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속삭임은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걷게 하고 때때로 아무도 전에는 밟지 않았던 길, 요구되는 것 이상의 일을 행해야 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의 길로 걷게 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미소를 지으라는 속삭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증오할 때 그에게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할 경우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자신을 변명해야 할 경우에 사과하고, 의롭고 정직하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표면적으로는 무리한 듯이 보이는 일들을 모두 행하라는 성령의 속삭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이 말하고 있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 되나니, “저기는 좁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20)

하늘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따르고, 끊임없이 기도의 영을 좇을 때, 기적의 세계가 이 현세에서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모험의 생활, 끊임없는 경이의 생활, 놀라운 통찰력과 이해력의 생활, 그리고 새로운 생활의 측면, 즐거움과 화평의 새로운 측면이 결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으로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축복으로 받았으며, 그 계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으로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지니 그런고로 저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교성 46 : 30; 50 : 29 참조)

나는 나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고 나의 이해력을 눈뜨게 해주었던 귀중한 경험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가로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음주, 흡연, 합당치 못한 농담 등등, 성령이 내게 허락하지 않을 이러한 것과 멀리하면서도 판매고를 높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독일 도르트문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내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그곳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는 나를 그곳으로 초청하면서 와서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즉시로 그가 나를 파리로 초청하는 진의는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 이외에, 돈이 많이 드는 그곳 도시에서 그가 써 버린 환락 비용의 청구서를 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임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눈앞에 닥친 일을 놓고 결단을 내리는 일이 무섭기조차 하였습니다. 나는 세일즈맨으로서 그곳으로 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파리행 밤 열차를 타고 여행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나의 표준을 타협하는 일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나의 친구는 이른 오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와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라 불어는 전혀 할 줄도 모르는 나에게 파리라는 환락의 도시를 보여 주고 싶은 것뿐이라는 것을 곧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줄곧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는 나에게 위로와 행복과 즐거움을 주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하였고, 집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초저녁 차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돼요, 안돼. 내일까지 나와 함께 여기 있어야 해요. 토론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은밀하게 보여 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구요. 오늘은 인생을 즐기시다.”

나는 그가 인생을 즐겁다고 느끼는 척도가 나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회사가 다루고 있는 사업이 우리 회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더욱 열심히 드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만한 사람들만이 아는 곳을 내게 보여 주고 싶어하면서 나를 조그마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영은 내게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낙했고, 우리는 먹는 데 꽤 시간이 걸리는 비싼 불란서 정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불

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식사를 주문하였고, 내가 나를 위해서는 포도주를 주문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두 병을 주문하였습니다.

대화는 순조로웠습니다. 그의 포도주병은 비어갔고 내 병은 손도 매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것을 눈치 채고는 병을 들어 내 잔에 가득 붓고 그의 잔에도 따랐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잔을 들고는 내 눈을 들여다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좋아하고 당신이 지키고 있는 표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건강을 위해서 축배를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잔을 비우지 않으면 나와 나의 사업은 끝입니다.”

내 몸안에 피가 얼어 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러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부쉬 형제, 이제 형제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은갓 종류의 합리화가 내 마음속에 기어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어떤 힘에 압도되었으며, 그 힘은 나를 큰 기쁨과 빛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나 자신도 놀랄게도 나는 나의 오른팔을 그의 어깨에 올려 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은 내가 결코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말, 즉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말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개씨, 제가 당신을 그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아시지요. 나는 당신이 이와 같은 비논리적인 조건으로 논리적인 사업의 결정을 내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걸요.” 나는 그를 끌어안으면서 사랑과 우정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눈에 눈물이 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다시 끌어안고는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잔을 마시면 나는 오늘 저녁에 당신을 망신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말아요. 이 식사가 끝나는 대로 내가 당신을 역에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열차 시간에 늦지 않게 바라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조그마한 침대 칸속에서 나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주님께서 바른 시각에 바른 방법으로 도와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21년 전에 개종한 이래로 줄곧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의를 끊임없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도와 주실 수 있을까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생활에서 만족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영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다 많은 빛과 진리와 능력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길로 걸게 해줍니다. 이러한 길을 찾고 이 과정을 따르는 것이 생활의 참된 보화인 것입니다. *

승자의 구두

로버트 엘 백맨
철십인 제일 정원회

“인간은 품고 있는 뜻의 이상도 아니요 이하도 아니다. 인간의 성품은 그가 생각하는 바의 총 집산이다.”라고 제임즈 엘런은 그의 저서 “인간이 생각하는 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나는 선교사들의 생활에서 이 말이 진리라는 증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지역에 도착한 신입 선교사가 내 옆에 앉아 우리는 그의 임무와 책임 그리고 그에게서 요구되는 훈련 등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대강 설명하자 그는 나의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백맨 선교부장님. 부장님께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가 소유하고 있는 봉사 능력을 깨닫게 해주고 그가 수행해야 하는 지상에서의 특별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나는 그에게 그를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가 자신을 약하다고 말하지마는, 그가 배우고 성장하고 봉사하도록 영향력을 줄 신입 선교사를 지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지역 지도자가 내가 다음 번에 선교 지역을 순시할 때 그가 나의 코를 한대 때리려고 버른다는 보고를 할 정도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몇 주일 내에 나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해 임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갖는 선교 지역 순시를 가졌습니다. 나는 선교사들과 개별적으로 앉아서 그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에 대한 확신을 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신입 선교사의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방문을 닫고 내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내 코를 때려서 기본이 좋아질 것 같으면 마음대로 때려 봐요.” 잠시 동안 나는 그가 내게 버르던 것을 행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내 품안에 안겨 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순간을 함께 한 것입니다. 나는 토론을 마치고 나서 그에게 그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싶다면 2년 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나의 사무실에 와서 그가 선교 사업을 잘 마쳤다고 말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 지역에서 돌아온 지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나는 사무실에서 문을 뚫고 열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여다 보는 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버르던 선교사였습니다. 아무 인사의 말도 없이 그는 “부장님, 제가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그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또 다른 신입 선교사는 몹시 수줍어 하는 사람이어서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얼굴이 빨갱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꽤지 농장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보다는 꽤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불붙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 대회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 그는 일어서서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미식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농장을 떠난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가 학교에 등록하였을 때 그는 미식 축구 팀이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되었

고, 자기도 미식 축구를 하고 싶었으나 그는 미식 축구화도 없었거니와 미식 축구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사촌이 학교에서 미식 축구 선수로 활약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촌의 집에 가서 미식 축구화를 빌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사촌은 그에게 미식 축구화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신발을 망신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해.”

그 선교사는 곧 팀에 들어갔습니다. 첫번째 경기에서 그는 몸집이 크고 거친 상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무서운 상대 적수를 한 번 바라보고, 칩을 꿀꺽 삼키고는 이렇게 혼자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넘어뜨릴 수 없어! 그러나 사촌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사촌의 신을 신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가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계속 게임을 하면서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어떤 선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바른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선교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든지 할 수 없다고 믿든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잡지에 나와 있던 선전 광고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뽕벌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뽕벌은 나를 수 없다. 역학적으로 볼 때 벌의 체구는 날개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수 없다. 그러나 뽕벌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르는 것이다.”

마커스아우렐리우스(121—180, 로마의 황제이며 스토아 철학가)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품은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받은 우리의 잠재력에 강조를 두었던 청소년 대회에

서 한 소녀가 일어서서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제 이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거울을 들여다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수잔, 너는 예뻐질 수 있어!’”

말일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의 개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지닌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실패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늘의 계획, 곧 영원한 구원의 계획의 혜택을 받도록 축복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보다 열의를 품으며, 보다 낙천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품고 있는 뜻의 이상도 아니요, 이하도 아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형제 자매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독특한 개성, 여러분의 밝은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진리,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에게 현세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 풍요롭고 생산적인 생활을 확신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성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위하여, 빌립보로 보내는 서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 *



안토니오를 방문함

폴린 더글라스

나는 동반자 선교사와 잘 어울리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우리가 지닌 어려움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있으나, 조그마한 브라질 마을을 불과 몇 주일 동안 함께 걷고 생활하면서 분개, 자만심, 그리고 사소한 차이점들

이 우리의 관계를 먹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함께 하는 기도는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되어 갔고, 상호간의 분개는 점점 거친 말로 터져 나오게 되었다. 부지불식간에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기 시작하였다.

여러 날 동안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회원을 방문하면서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던 어느 날 오후, 그날도 역시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그날의 활동 기록부를 메꾸기 위하여 안토니오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안토니오는 비회원이었으며 그의 아내는 여러 해 전에 교회에 가입하였으나 비활동이라는 말을 겨우 면할 정도의 회원이었다. 그는 선교사들을 존중하였으며, 여러 차례 그가 아플 때 그들에게 축복을 부탁할 만한 신앙을 보여 주었다. 나의 현재의 동반자와 나는 그를 두 번 축복하였으며, 다른 선교사들도 여러 번 축복해 준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안토니오가 복부 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아니면 겨우 몇 주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행하여졌던 것이었다.

그날 그의 아내가 문을 열어 주었을 때 그녀는 수심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안토니오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었으며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토니오가 우리가 그곳에 와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좁은 침대 위에서 피로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암담하였다. 안토니오의 아내는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 마주 바라보다가 안토니오를 보다가 마루를 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였다. 게다가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말은 없었으나 우리는 어떠한 일을 수행할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 중의 하나가 우리 두 사람만이

잠시 있을 수 있는 방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토니오의 아내는 우리에게 침실을 가리켜 주었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차례로 기도를 드렸다. 처음에는 주님께 안토니오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첫번째 기도의 응답인 침묵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엄습했다. 그러자 우리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소스럽게 그러나 결국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사치와 자존심을 허락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합당치 못함 때문에 안토니오가 계속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앙과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안토니오를 축복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친히 안토니오를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우리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약 반 시간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나가서 안토니오에게 안수하고 영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고 결정하였다.

우리가 방에서 나오자 그의 아내는 “기도하셨어요?”라고 물었다.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이가 잠이 들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평정된 마음으로 그집을 떠났다. 영원히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이 기록된 교훈은 어리석은 개인적인 차이점이 축복의 권능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절단시킨다는 어렵게 얻은 교훈이었다. *